

.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시상내역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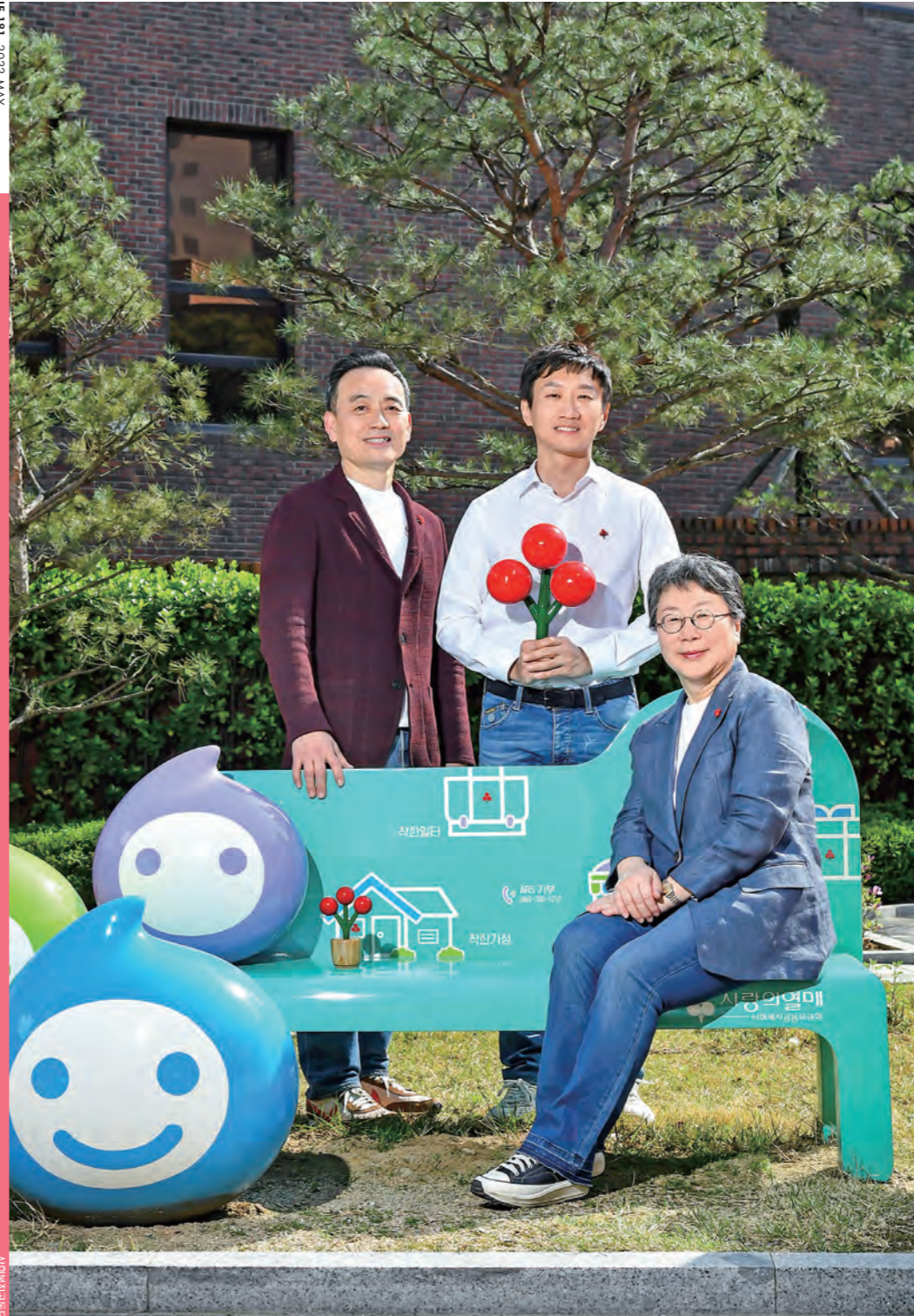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1 2022 MAY

202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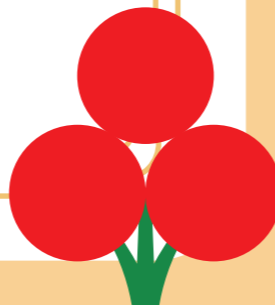


청년에 투자하며 새로운 나눔 모색하는 청년모 23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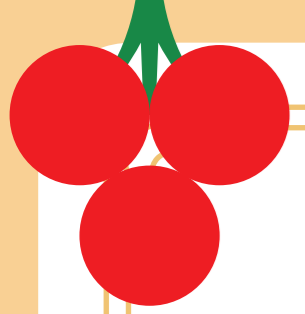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영아너분과 회원들의 나눔 열풍 열전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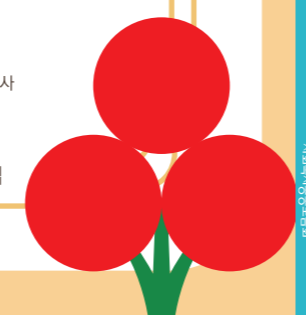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1 2022 MAY



한국부동산원

2022 05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다

대구 시대 10년,
한국부동산원이 만들어온
나눔의 가치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시상내역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사랑의열매  교육부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1 2022 MAY



202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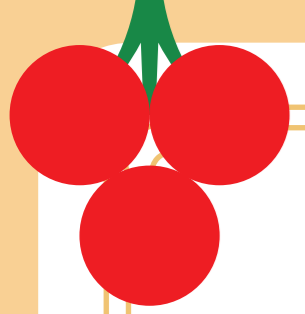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기업인
(주)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22.05.09 - 06.24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나눔공모전.com
* 단체 접수는 우편 접수 가능

응모주제 “나눔은 OO이다”

응모일정 공모기간 05.09 월 - 06.24 금
심사기간 07.11 월 - 09.16 금
수상자발표 10월 중
시상식 11월 중

응모부문 글 / 이미지 / 영상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방법 소개
- ◆ 환경을 지키는 나눔이야기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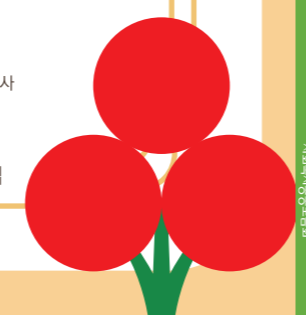
교육부장관상	4명(팀)
시도교육감상	5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60명(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170명(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400명(팀)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4-130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나눔공모전

주최 사랑의열매 교육부

후원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미술사 최현우님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1 2022 MAY



2022 05

제주농협의 따로 또 같이 일석삼조 나눔

전국 농협 최초로 나눔명문기업 가입은 물론, 다양하게 선보이는 사회 공헌 활동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ISSUE 181 2022 MAY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zhihoon87



승용차 대신 걸어서 이동하는 걷는 소나무 캠페인!
산불로 나무가 많이 사라진 요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나무에 더 감사하게 되네요.^^
걸어서 출근하니 의욕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움직이는소나무 #걷는소나무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 #숲과나눔
#초록열매
#사랑의열매 #지구의날 #캠페인
#온실가스감축

gina_vajra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에 도전! 그동안 말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상자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음쌈 #도전음쌈
#지구쓰담이
#사랑의열매

minji139208



기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사랑의열매에서 현물 기부도 가능해요!
쌀, 김치, 라면, 통조림 등 식품과 생활용품, 도서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물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쌀을 기부했어요 :)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입니다.
#사랑의열매 #현물기부 #쌀기부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짜릿해요.”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상민



박상민



연예계 대표 나눔 인사인 박상민님은 2013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황기순님과 함께 자전거 전국 일주 모금 운동에 참여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왔습니다. 또 2018년에는 착한가정 1000호에 가입하며 대한민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1 2022. 05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청청모란 '청년을 돕는 청년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사진은 (왼쪽부터) 청청모 회장 허대건 前 유베이스 대표이사, 부회장 정원석 부국증권 MS센터 부장, 부회장 심재원 (주)메디씨앤씨 대표이사

04

긴급 구호

온정의 손길로 만든 새 희망을 전합니다

06

모두의 나눔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12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울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16

내 인생의 한마디

스타 강사 '큰별쌤' 최태성 소장

20

착한 열매슬랭

친근한 음식 편안하게 즐기는 대전 맛집

2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15년째 나눔 이어온 김고은·김다운 쌍둥이 자매

26

착한기업

안전에 행복을 더하는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에이치모터스(주)

30

나눔 이슈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32

클라우드펀딩

취약 계층을 위한 커스텀 소화기 제작과 보급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5월 / 통권 18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1 2022. 05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공공기관 나눔의 모범이 되는 한국부동산원 ESG전략실 이선미 대리, 손태락 원장, ESG전략실 장대문 실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5월 / 통권 18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긴급 구호

온정의 손길로 만든 새 희망을 전합니다

06

모두의 나눔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12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울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16

내 인생의 한마디

스타 강사 ‘큰별쌤’ 최태성 소장

20

착한 열매슬랭

친근한 음식 편안하게 즐기는

대전 맛집

2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15년째 나눔 이어온 김고은·김다은

쌍둥이 자매

26

착한기업

안전에 행복을 더하는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에이치모터스(주)

30

나눔 이슈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32

클라우드펀딩

취약 계층을 위한 커스텀 소화기

제작과 보급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울산·경북·경남·부산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1 2022. 05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을 이끌고 있는
(주)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5월 / 통권 18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긴급 구호

온정의 손길로 만든 새 희망을 전합니다

06

모두의 나눔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12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울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16

내 인생의 한마디

스타 강사 ‘큰별쌤’ 최태성 소장

20

착한 열매슬랭

친근한 음식 편안하게 즐기는

대전 맛집

2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15년째 나눔 이어온 김고은·김다운

쌍둥이 자매

26

착한기업

안전에 행복을 더하는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에이치모터스(주)

30

나눔 이슈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32

클라우드펀딩

취약 계층을 위한 커스텀 소화기

제작과 보급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세종·대전·충북·충남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1 2022. 05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제주시농협 고봉주 조합장,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강승표 본부장,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5월 / 통권 18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04

긴급 구호

온정의 손길로 만든 새 희망을 전합니다

06

모두의 나눔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12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울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16

내 인생의 한마디

스타 강사 ‘큰별쌤’ 최태성 소장

20

착한 열매슬랭

친근한 음식 편안하게 즐기는

대전 맛집

2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15년째 나눔 이어온 김고은·김다은

쌍둥이 자매

26

착한기업

안전에 행복을 더하는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에이치모터스(주)

30

나눔 이슈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32

클라우드펀딩

취약 계층을 위한 커스텀 소화기

제작과 보급

3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제주·광주·전북·전남

4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46

전국 지회 뉴스

56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산불과 전쟁으로 스러져간 삶의 터전

온정의 손길로 만든 새 희망을 전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되었지만, 참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봄이 오지 못했다. 한때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던 그곳에는 검게 그을린 상흔만 남았다. 사랑의열매는 그곳에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많은 이가 모아준 사랑으로 일군 새 희망을 말이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평화의 염원이 우크라이나에 닿기를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열매의 특별 모금에 많은 이의 정성이 모였다. 지난해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모델로 참여하며 2,000만 원을 기부한 가수 겸 배우 김세정도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마음을 더했다. 그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며 “하루빨리 종전되어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3월 4일부터 3월 말까지 전개된 이번 특별 모금에 총 4억 2,528만 9,626원의 성금이 모였다. 기부금은 국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에 피신한 난민들을 위한 물과 식료품, 구급약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끝없는 기부 행렬

경북과 강원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전국 각지에서 보낸 위로와 온정은 줄어들 줄 모른다. 지난 3월 24일에는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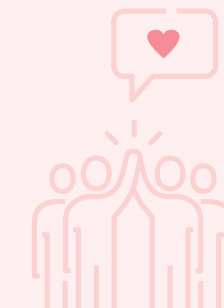
장 김병근)에서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전했다. 4월 1일에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중앙위원장 양혜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모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4일에는 한국전력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 빛가람사회공헌위원회에서 1만 8,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은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주택 피해 398세대에 50억 원 지원

3월 초 주택이 전소된 위기 가정 200여 세대에 3억 원을 긴급 지원한 사랑의열매가 본격적인 이재민 구호에 나섰다. 4월 12일 특별 모금으로 모인 성금 196억 원 중 50억 원을 1차 지원한 것.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 및 피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 피해자 398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전소 피해 302세대에 각각 1,500만 원, 반소 피해 5세대에 각각 600만 원, 부분소 피해 32세대에 각각 270만 원, 세입자 피해 58세대에 각각 650만 원을 일괄 지급했다. 사랑의열매는 이후 이어질 추가 지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피해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



1 사랑의열매 광고모델로 참여했던 김세정은 이번 우크라이나 특별모금에도 기부금을 전했다. 2 지난 3월에 경북과 강원에 발생한 산불은 큰 피해를 남겼다. 3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한국전력 전국전력노동조합 빛가람사회공헌위원회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에 따라 모든 어린이는 차별받지 않으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이런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잊히기도 한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의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모든 아이가 공평한 기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클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조성함



1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술 치료
2 학교 부적응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멘토링
3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대안교육 지원 사업

청소년희망재단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업 부진, 사회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해 차별화한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삼양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음악 활동, 미술 치료 등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알맞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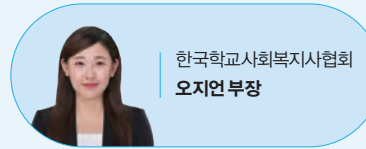
아동의 일상생활 기술 증진 프로그램 혼자서도 잘해요! 같이 하면 더 잘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 또는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인 아동은 온라인 수업, 식사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일상을 대부분 혼자 해내야 하는 현실이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아동의 의식주, 건강과 위생은 물론, 정서와 인간관계까지 전반적 점검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돼 2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년 1차 연도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에 집중했다. 해당 매뉴얼을 기반으로 전국 10개교 32명의 학생이 참여해 일상생활 기술을 익히며,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역량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올해에는 참여 학교를 35개교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 현장 방문 및 학교사회복지사 자문 실시 2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 배분 사업 전달식



Mini Interview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오지연 부장

일상생활 기술 증진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학교사회복지사와 또래의 지지 속에서 자기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삶의 모습(일상생활 기술)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습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 아동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칭찬까지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한 아이의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 혼자 해내는 모습이 대견했다고 말씀한 보호자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둔 부분이 어떤가요? 아이들의 주도성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아동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점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교육 현장이 학습 격차에 집중하던 학력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아동의 생활·삶을 중심으로 돕고자 일상생활의 기술을



3 참여 아동과 함께한 식생활 프로그램 진행 모습
4 학교 현장에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프로그램에 내실을 다졌다.

또래,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배우고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코로나19 이후로 방임된 아이, 일상생활이 무너진 아이가 많음을 확인했지만, 이를 지원할 조직과 예산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의열매의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가능케 한 기적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소외 아동의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및 미래 세대 소프트파워 역량 개발 프로그램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거나, 보호자가 학습 관리·지도 역할을 하기 힘든 가정의 경우 온라인 학습은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이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년부터 나눔과꿈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에 조기 개입해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기를 넘나들며 적응하는 기술은 물론, 최근에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사업은 긍정적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가정 내 인식을 개선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의 문을 열다',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를 실현하는 '디지털 시대 미래 역량을 갖추다', 커뮤니티 디지털 리터러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역사회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다'로 나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 습득과 더불어 긍정적 디지털 의식과 태도,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1 디지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
2 디지털과 친해지기 활동 체험 모습



Mini Interview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옹가연 사회복지사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지난해 진행한 1차 연도 사업은 지역 내 디지털 리터러시 소외를 경험하는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동 30명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했으며, 멘토링 학습, 디지털 기초 교육 그리고 디지털 체험 활동을 통해 코딩과 드론 등 디지털 분야와 직접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 사업 내용과 더불어 아동의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디지털 생산자로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맞춤형 디지털 기술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1차 연도에 확인한 아동의 관심사를 코딩, 웹툰 그리고 영상 편집으로 나누었으며, 분야별 정규반을 구성해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연도 프렌디디지털(Frien:Digital) 사업은 참여아동의 디지털 활용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에 아동에게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자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디지털과 친숙하게 살아가는 아이들과 달리 기성세대인 보호자는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1차적 지지 체계로서 보호자의 디지털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보는 체험 활동으로 기획했습니다.

기존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를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각지대인 디지털 리터러시 소외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실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소외 계층 디지털 역량 개발에 함께 기여하고 있습니다. 🍀



3 디지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발 프로그램
4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아이들이 연주하는 건 바로 자신들의 꿈입니다”

음악이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한 아이의 인생은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오카리나를 불던 아이가 플루트 연주자가 되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얘기다. 글강은진 사진감기념



—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16 기억공감 음악여행' 공연을 마치고 기념 촬영 중인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단원들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지난 4월 16일,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 4·16 광장에서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이하 안양·군포관악단)을 만났다. 이날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연이 진행됐는데, 안양·군포관악단은 세 번째 순서로 무대에 올라 ‘암머랜드(Ammerland)’, ‘어메이징 그 레이스(Amazing Grace)’,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등 감동적인 곡들을 선보였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노란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연주하는 단원들 모습은 더없이 진지하고 경건했다. 무엇보다 음악이 인상적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단원들의 합주는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들이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고민

안양·군포관악단은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 ‘나눔과꿈’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1980년대부터 안양·군포 공단 지역의 소외 계층과 함께해온 사단법인 한무리사랑나눔회가 한국판 엘시스테마(EI Sistema)를 표방하며 2009년에 창단, 올해로 12년 차를 맞는다. 엘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재단으로,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빈민가 아이들을 음악을 통해 구한 것으로 유명한데, 안양·군포





관악단 역시 열악한 양육 환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만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부모·조손·다문화·저소득 가정 아이들로 다양한 정서적 상처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결여된 채 불안과 우울, 사회적 일탈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의 자신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그 답을 음악에서 찾았다.

꿈꾸기 시작한 아이들

안양·군포관악단은 안양·군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다. 물론 센터에서 배운 오카리나나 리코더 연주 및 악보 보기

등 소정의 오디션에 거쳐야 한다. 이후 단원으로 선발되면 음악 이론과 악기 교육(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을 받고, 월 2회 합주와 연 1회 정기 연주회 및 다수의 지역사회와 문화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을 한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관악단으로서 자긍심은 물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음악은 분명 아이들을 꿈꾸게 만들었다. 안양·군포관악단에서 음악 전공자가 2명이 나왔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후배들과 초청 공연을 함께 하는 졸업생도 여럿인 걸 보면 말이다. 이들은 후배 단원들의 멘토이자 롤모델이 된다. 그래서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연주의 또 다른 이름은 꿈이다. 지금, 그 꿈을 감상하러 가자. ♡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오카리나를 배우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관악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관악단에서 멋진 플루트 악기를 본 순간 정말 잘하고 싶더라고요. 기쁜 순간요? 악기를 배우면서 제게 음악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와 오늘처럼 뜻깊은 공연을 할 때요. 되게 뿌듯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겨요.”

—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 플루트 연주자 이윤서 양(군포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자신감 심어주는 소중한 활동”

MINI INTERVIEW

안양·군포관악단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역시나 재정적인 면이다.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도 아니고, 관악단은 다른 활동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 자립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나눔과꿈'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나눔과꿈' 지원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나? 안정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고 합주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관악단 전담인력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캠프는 실력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관악단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이다. 이런 친구들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악단 활동은 악기를 배우며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고,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된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도 관악단을 지켜가는 이유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을 것 같다. 얼마 전 있었던 비대면 연주회에서, 졸업생들이 자신들이 여릴 적 관악단에서 연주하던 곡을 선보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관악단 1·2기는 이제 서른 살 성인이다.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건강한 어른으로 잘 자란 모습을 보니 뭉클하더라. 음악이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 기쁨지역아동센터 편지영 센터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나눔의 큰 별까지... 스타 강사 '큰별쌤' 최태성 소장

“나눔의 길, 600만 별님과 함께 가보려 합니다”

한국사의 큰 별에 나눔의 큰 별까지 더하면 얼마나 더 큰 별이 될까?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부터 홍보대사까지, 새로운 나눔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최고의 한국사 스타 강사 별별한국사연구소 최태성 소장 이야기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큰 영광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사 강사, 별별한국사연구소 최태성 소장을 만났다. 이날은 최태성 소장의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 날로, 그는 사랑의열매 상징인 빨간색 옷과 안경을 맞춰 착용하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홍보대사로 준비된 그의 모습에 행사장 곳곳에서 “역시!”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온 삶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안을 받고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와 한국사를 공부하는 별님들이 저마다 흥

보대사가 되어 같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저 혼자라면 못 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나눔의 길을 가지 못했을 거라 말하는 최태성 소장. 그런 그를 홍보대사까지 맡으며 각오를 다지게 한 별님들은 누구일까? 바로 최태성 소장의 유튜브 채널 ‘최태성 1TV(한국사능력검정시험·수능 대비 강의)’와 ‘최태성 2TV(한국사 교양 전문 강의)’의 구독자, 이른바 랜선 제자들이다. 이들은 누적 수강생만 600만 명에 달한다. 최태성 소장에게 사랑의열매를 소개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권유한 것도 모두 이 별님들이었다.





—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최태성 소장, 경기 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의 홍보대사 위촉식 기념사진. 최 소장이 경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인연으로 이순선 회장이 특별히 자리를 함께했다.

“지금 가치로 200조 원이 넘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처분하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매 순간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셨다고 해요. 선생님의 그 질문이 유료 교육의 엄청난 계약금에 흔들리기도 하는 평범한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별님들은 내 나눔의 동행

“교재 인세 일부와 슈퍼챗 등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어요. 이게 매년 6,000만~7,000만 원 정도 모이는데, 기부처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이면 별님들과 같이 고민하는데, 그때 한 별님이 댓글로 사랑의열매라는 좋은 기관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사랑의열매에 다니는 별님이 아니셨을까...(웃음)”

최태성 소장은 무엇보다 600만 별님 모두와 아너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공유하고 싶었다. 이런 경험이 훗날 별님들이 개인적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처럼 최태성 소장의 모든 나눔에는 ‘별님’들이 함께한다. 지난해 12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기념 패널의 기부자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별님들’이었고, 홍보대사 위촉식 행사장 플래카드에는 ‘한국사 열공 별님들x큰별쌤 최태성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식’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정말 평범한 사람도 나누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나눔도 연습하는 거구나. 저게 가능한 거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도록 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를 홍보대사로 선택하신 이유라 생각하고요”

20년째 전 강의 무료, 공유 교육의 길

교직에 몸담고 있던 최태성 소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1년 EBS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면서부터다. 당시 그는 학생들에게 ‘웃으며 듣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명강의를 선사하며 단숨에 공유 교육 교사의 대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다

2016년, 학교를 그만둔 최태성 소장은 100억 원대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위한 한국사 무료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이적 조건으로 내걸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는 나눔이 익숙한 사람이 아닌데, 나눔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학생들 앞에선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렇게 내린 결론이 ‘내가 가장 잘하는 것부터 나누자’였어요. 바로 무료 강의입니다.”

최태성 소장은 어떤 환경에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재까지 20여 년째 EBS와 이투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재도 시중 서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해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배려한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 길을 저는 ‘공유 교육’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교육의 벽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나눔의 길이기도 한 공유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눔이 익숙하지 않다면서 누구보다 나눔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진짜 크고 빛나는 우리 모두의 선생님! ‘큰별쌤’ 최태성 소장이다. ♣

최태성 소장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에 어울리도록 별님들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맛과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착한가게

친근한 음식 편안하게 즐기는 대전 맛집

노잼 도시라 불리지만, 더 재미있어진 곳이 바로 대전이다. 음식 역시 그렇다. 익숙한 메뉴가 주는 친근함에 극강의 가성비가 덤으로 붙는다. 그저 편안하게 즐기지만 하면 되는 대전의 착한 맛집을 소개한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푸짐한 한 끼를 약속하는 태평소국밥

대전시 동구 계족로140번길 91 ☎ 042-286-9825
매일 24시간 연중무휴

대전은 소국밥의 고장이다. 소국밥이란 나주 곰탕과 소고기뭇국의 중간 형태 음식으로 맑은 국물이 특징이다. 순수하게 소고기 국물 맛을 즐기기에 이만한 음식이 없다. 그중에서도 먹으면 먹을수록 기부되는 대전 동구에 자리한 태평소국밥은 한약재를 사용해 육수의 풍미가 남다른데, 기름기를 제대로 잡아 국물이 깔끔하다. 미리 밥을 토렴해 말아서 나오는 전통 방식이라 마지막까지

뜨끈하게 먹을 수 있다. 결대로 찢은 살코기와 대파를 푸짐하게 올려 먹음직스럽다. 국밥도 국밥이지만, 한우 육사시미만큼은 꼭 주문하자. 100g 중자가 1만 원, 150g 대자가 1만 3,000원으로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조금 투박하지만 얇게 썬 붉은 육사시미가 기막히게 부드러워, 곁들여 나온 마늘과 먹으면 그야말로 이색 별미! 갈비탕과 내장탕, 육개장 등 소고기를 쓰는 다른 메뉴도 있으니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칼칼한 주꾸미와 칼국수를 한 번에 공주얼큰이칼국수

대전시 중구 유천로 60 ☎ 042-585-4747



대전을 상징하는 향토 음식이 바로 칼국수다. 전국 최초로 칼국수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그만큼 다양한 맛의 칼국수가 있는데, 특히 빨간 국물이 이색적인 얼큰이칼국수가 유명하다. 공주얼큰이칼국수도

상호처럼 얼큰이칼국수로 이름난 곳이다. 진한 멸치 국물에 고운 고춧가루와 특제 양념을 섞어 숙성시킨 양념장을 푼 국물이 유난히 걸쭉하고 빨갛다. 거기에 달걀을 풀고 김 가루와 깨소금을 뿌리는데, 강렬한 재료의 대비가

식욕을 자극한다. 맵기 정도는 주문 시 선택할 수 있고, 맑은 국물의 칼국수도 있다.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잘 쓰는 집답게 매콤한 주꾸미볶음도 인기다. 입에 착 붙는 양념이 주꾸미와 찰떡궁합이다. 마지막 볶음밥이야 말해 뭐 하라. 거기에 착한가게일 뿐 아니라 복지시설에 후원도 하는 고마운 곳이다. 망설이지 말고 방문해보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새로남카페

대전 서구 대덕대로 378 ☎ 042-470-7088

지역 주민들 사이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카페로 이름난 곳이다. 사랑의열매와도 인연이 깊다. 착한가게는 물론 나눔리더에게까지 가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카페로 매력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오해는 금물! 한밭수목원 근처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인 새로남교회 10층에 자리해 둔산동까지 보이는 멋진 뷰를 자랑한다. 또 폭신한 소파부터 테라스풍 테이블 등 다양한 콘셉트로 꾸민 인테리어는 시원하고 감각적이다. 메뉴도 다양하다. 커피와 주스, 스무디, 요구르트, 와플에 계절 메뉴 빙수까지 있다. 가격은 더 착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2,500원 선인 데다 음료 단품의

경우 500원만 추가하면 아메리카노 리필도 가능하다.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얹어 먹는 아포카토와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와플, 생크림과 즐기는 허니 브레드까지 나만의 브런치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





— 딸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고자 한 아버지 김순일 씨와 아홉 살 무렵의 두 자매

8세 때부터 매년 기부, 15년째 나눔 이어온 김고은·김다운 쌍둥이 자매

여덟 살 무렵, 아빠 손을 잡고
세뱃돈을 기부하러 사랑의열매
사무실을 찾은 게 시작이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다.
아름다운 제주만큼이나
아름다운 두 자매의 나눔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세상이 아직은
아름답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실천에 옮겨보세요.
세뱃돈, 용돈, 저금통의 돈까지... 작은 정성이
모이니 큰 사랑이 되더라고요.” - 김고은 양



아빠 손 잡고 기부하러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 사랑의열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15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스물두 살의 김고은·김다운 쌍둥이 자매다. 조금 특별한 이 나눔 이야기는 자매가 여덟 살이 되던 2008년, 나눔을 통해 돈의 가치를 알려 주고자 한 아버지의 권유에서 시작된다. “세뱃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어떡냐는 아빠의 말에 좋다고 답한 것 같아요.(웃음) 아빠 손을 잡고 사랑의열매 사무실에 갔는데... 부끄러웠지만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좋았어요.” 김고은 양은 지난해까지 세뱃돈을 기부

해오다 올해부터는 자신들의 생일을 기념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뱃돈에 용돈과 저금통,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을 더해해서 말이다.

기부, 액수 아니고 실천!

“처음 기부한 세뱃돈이 둘이 합해 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적은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를 보고, 거액만이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부란 마음과 실천이라고 김다운 양이 힘주어 말한다. 현재 김고은 양은 제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김다운 양은 제

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모두 이타적 마음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학문. 어린 자매의 손을 잡고 사랑의열매를 찾은 아버지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어렵듯이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더 좋은 활동 많이 하고파

자매는 2016년 제주 제민일보사가 주최한 ‘WeLove(We♥)’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와 자신들의 기사를 보고 기부를 시작했다는 댓글을 봤을 때 가장 기뻐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늘 겸손하고, 경청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저희에겐 언제나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많이 하고 싶어요.”

제주만큼이나 아름다운 자매의 이야기다. 그나저나 사회복지학을 공부 중인 김고은 양은 언젠가 사랑의열매에서 자신과 같은 기부자를 맞는 건 아닐까? 충분히 떠올려볼 만한 기승전결이다. ♡



— 올해 2월 진행된 자매의 생일 기념 성금 전달식. 제주 사랑의열매 심정미 사무처장, 김고은·김다운 자매

안전에 행복을 더하는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에이치모터스(주)

이웃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드라이빙

‘볼보=안전’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볼보자동차가 다양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의 드라이빙이 아름다운 이유는 안전 속에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글 강보라 사진 에이치모터스(주)

이웃사랑 실천을 약속하며 경기 제10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에이치모터스의 황호진 대표와 직원들



볼보 분당 서현 전시장은 확장 오픈을 기념하며 지적 장애인 시설의 정비 비용을 지원했다.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사인 에이치모터스(주)는 경기 제10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지역 나눔에 언제나 앞장서는 기업이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중견·중소기업으로, 체계적 사회 공헌을 위해 설계한 전문 기부 프로그램을 말한다. 에이치모터스의 황호진 대표는 경기 21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경기 사랑의열매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느낀 나눔의 감동을 회사 차원에서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에이치모터스는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볼보자동차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나눔명문기업으로 주변 이웃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에 실속을 더한 똑똑한 나눔 전략

행사 현장은 화분과 화환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에이치모터스의 행사장은 시작부터 다르다. 2021년 볼보자동차 율현서비스센터(서울시 강남구) 건립을 완공한 에이치모터스는 협력업체와 관계사 등으로부터 축하 화환 배달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금세 폐기물로 버려질 것을 염려한 에이치모터스는 감사의 뜻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범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적된 기부금은 아주대병원 후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교통사고 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경기사랑의열매’에 지원하였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촉구하는 ‘버클업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교통사고 의료비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

전하며 이웃들을 위한 쌀 화환으로 요청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렇게 율현서비스센터 건립 행사에서 모인 쌀 화환을 장애인 공동 시설인 수원 에벤에셀에 기부하며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쌀 화환은 변화한 경조 문화의 한 축으로 조명받는 아이템이다. 보통 쌀 포대에 축하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는데 가격 부담 없이 축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를 더하는 선물이 된다. 이런 바람직한 재활용은 환경오염을 막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석이조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쌀 소비를 늘려 국내 쌀 농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환

경보후에 실속을 더한 똑똑한 나눔 전략은 모두에게 권장할 만한 방법이기도 하다.

볼보만의 안전 철학으로 이웃을 지키다

에이치모터스는 안전의 대명사 볼보자동차의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버클업(Buckle Up)!' 캠페인을 진행했다. 버클업 캠페인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동참하는 운동으로, SNS에서 안전벨트 착용 서약과 필수 해시태그 및 챌린지 동참 친구 3인을 지목하면 된다. 버클업 챌린지 1건당 경기 사랑의열매에 1만 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아주대학교병원에 전달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28.4%에 불과한 실정이다. 버클업 캠페인은 볼보의 핵심 철학인 안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모든 차에 적용한 안전벨트 방식인 3점식은 1959년 볼보의 엔지니어인 닐스 볼린(Nils

Bohlin)이 개발한 것으로, 볼보는 해당 기술에 특허를 내지 않고 다른 자동차 제조사가 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공유한 역사가 있다. 이 기술은 오늘날 전 세계 100만 명이상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안전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에이치모터스는 돈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볼보의 철학을 이어가며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장애의 장벽을 함께 넘다

에이치모터스 사업의 바탕에는 언제나 나눔이 함께한다. 최근 분당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확장 오픈하면서 성남 장애인 복지시설의 천장 수리와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도 했다. 지원을 받은 우리공동체는 성남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로, 장

1 동해안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해 2,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에이치모터스는 정기 기부 외에 긴급 성금 기탁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 3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인 우리공동체의 방수 공사 모습. 에이치모터스의 정비 지원 덕에 장애인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행사장에서 모은 쌀 화환으로 기부를 이어가는 모습.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똑똑한 나눔 전략으로 나눔명문기업다운 활동이다.



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당시 우리공동체는 장마로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공동체 최영희 원장은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새는 곳은 축축하고 곰팡이가 피어 아이들 건강이 염려됐는데, 오랜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지원을 결정한 황호진 대표는 “볼보자동차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런 지원으로 일어난 공간 변화는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장애인 복지기관의 환경 개선은 장애인의 행복한 자립 생활을 돕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 출발을 에이치모터스가 함께한 것이다.

소아암 환자의 꿈을 지키는 우리 동네 히어로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 4명, 해마다 1,500여 명

의 어린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소아암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꾸준한 치료로 80% 이상이 완치된다는 것. 하지만 성인과 달리 장기간의 치료가 기본이며, 치료 과정도 복잡하다. 이 때문에 소아암 어린이 환자의 가족은 고액의 치료비와 치료 유지를 위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간병으로 생업에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가게 부채를 멍에처럼 안고 살아간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에이치모터스는 2020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소아암 환아는 물론, 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지원이기도 하다. 에이치모터스의 사회 공헌은 옆집 이웃처럼 친근하고, 가슴 한쪽을 데우는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다. 동네를 지키는 친숙한 히어로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함께한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을 가리키는 에이치모터스의 따뜻한 나눔 드라이브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나눔에 진심인 사람 모두 모여라”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이 올해 열 번째로 열린다. 매년 많은 아동·청소년이 참가하는 만큼 벌써부터 공모전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번 공모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공모작을 제출하기 전 바뀐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주제 확인하기

‘나눔은 ○○이다’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하기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 방법 소개 ○환경을 지키는 나눔 이야기

참여할 공모 부문 선택하기

- 글(개인 참가) 시, 산문 직접 체험 혹은 실천한 나눔 경험 이야기
- 이미지(개인 참가) 손 그림, 포스터, 일러스트, 만화·웹툰
나눔 실천을 잘 표현하고 함축할 수 있는 이미지
- 영상(개인 및 팀* 참가) *최대 5명
영화, UCC, 인터뷰, 애니메이션, 광고 등 모든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
일상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나눔 혹은 나눔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영상

제출 방법 살펴보기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단체 접수의 경우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글 시 A4 용지 2매 내외 산문 A4 용지 3매 내외
 - 이미지 손 그림, 포스터 초등학생 - 8절 도화지, 중·고등학생 - 4절 도화지
일러스트 초등학생 A3, 중·고등학생 A2, 150dpi 만화·웹툰 10컷 내외 스토리가 완결된 상태의 작품,
손 그림(실물 작품)의 경우 작품을 스캔해 온라인 제출
 - 영상 10초 이상 3분 내외의 영상, 개인 및 팀(최대 5명) 참가 가능
POINT 유튜브에 업로드해 저작권 위반 확인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주소(URL) 포함해
온라인 제출(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접수 기간 기억하기

2022년 5월 9일~6월 24일

* 자세한 사항은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홈페이지(www.나눔공모전.com)에서 확인 가능



제9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지도교사 부문 수상
경북 길주중학교 이현자 선생님



지난해 나눔공모전에서 경북 길주중학교가 단체 부문을,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도교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나눔공모전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제가 맡은 과목이 도덕이다 보니 평소에도 나눔의 가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9년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나눔공모전을 알게 된 이후부터 매년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일상 속 나눔을 고민했고, 공모작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에는 교내 나눔 행사로 발전해 전교생이 나눔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내 행사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나요? 길주중학교 교훈이 ‘자신에게 충실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 교육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황덕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선생님께서 나눔공모전의 취지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학생이 나눔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내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개 부문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는데, 주위 반응은 어땠나요? 학생들의 열띤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황덕기 교장 선생님께서 “매우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며, 특히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나눔이란 개념이 학생들에게 자칫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했나요?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와 공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기에 남을 배려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지요.

지난해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어떻게 나눔공모전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홈페이지에 있는 공모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의 사례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나눔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어 공모 작품이 한층 풍부하고 다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달에는 취약 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 소화기 제작과 보급을 위한 펀딩을 진행한다.

클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화재 위험에 노출된 사회 취약 계층에 나눔으로 안전을 전해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5월~6월 30일

목표 금액 500만 원

모금 사용 취약 계층을 위한 소화기 제작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캠페인 클라우드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취약 계층을 위한 커스텀 소화기 제작과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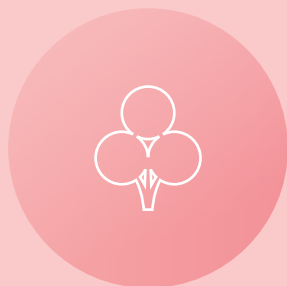
“무서운 화마로부터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길”

전체 화재에서 5년간 연평균 주택 화재 발생률은 약 17%이지만, 화재 사망자 비율은 37.7%로 타 장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설치율은 고작 56% 내외에 불과합니다. 또한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노인과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무거운 3.3kg 무게이거나 그나마도 구석에 배치되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가볍고 사용하기 쉬우며, 어디에 두어도 눈에 띄는 예쁜 디자인까지 이런 커스텀 소화기만 있다면 위급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

5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전국 최초, 아너소사이어티 공동기금 발족해 청년 돕는 청청모 회원 23인

“세상에서 소외된 청년들, 우리가 찾아보려 합니다”

서울 아너 클럽 회원 소모임으로 시작해 청년 지원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찾기 위해 열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23명의 청청모 회원들이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서울사랑의열매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 도와

기부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청청모가 화제다. 청청모란 ‘청년을 돕는 청년들의 모임’의 약자로, 2015년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세대별 모임 ‘3040’이 그 시작이다. 이후 2019년 기금 마련에 동의한 회원 23명을 중심으로 청청모 소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나눔 활동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청년 지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11억 원의 ‘청청모 청년 투자 기금’을 발족하는 등 남다른 행보로 나눔 활동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너소사이어티 공동기금으로는 전국 최초다. 청청모 허대건 회장(前 유베이스 대표이사)은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30~40대 영 아너들이 모인 만큼 대화는 자연스럽게 청년 문제로 흘러갔다”면서, “친목이나 봉사를 넘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청청모 청년 투자 기금 발족식 기념사진



무엇을 더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할 터

청청모는 현재 3년 프로젝트로 사단법인 ‘씨즈’의 고립 청년 지원 체계 구축 사업과 재단법인 ‘밴드’의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관련 사업이나 기금이 2,000개가 넘는 정도로 많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외된 청년들이 있었다”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라고 청청모 심재원 부회장(주메디씨앤씨 대표이사)은 설명했다. 또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

하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이 적극적으로 더해진다는 점도 눈에 띈다. 멘토링 콘서트부터 창업팀 지원 워크숍, 청년을 위한 각종 포럼 등 일정 캘린더가 빼곡하다. 청청모 정원석 부회장(부국증권 MS센터 부장)은 “함께 공부해보자는 마음이 모여 여기까지 왔다”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참여를 권했다. 청청모 회원들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청년과 중도 입국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것, 가장 인간다운 일 아닐까.”

— 청청모 심재원 부회장(주메디씨앤씨 대표이사)

“돌이켜보면 나를 위한 일이었다. 그 벅찬 마음을 알기에 자꾸 주변에 권하게 된다.”

— 청청모 정원석 부회장(부국증권 MS센터 부장)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청청모의 활동은 내게 선물과도 같다.”

— 청청모 허대건 회장(前 유베이스 대표이사)

인천 사랑의열매로 줄 잇는 시민·기업·단체의 구호 성금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위해 힘 모은 인천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인천이 나섰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이 성금을 전달하며 힘을 모은 것. 글강은진 사진 인천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배경순 부회장, 인천지회 서임순 회장,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운 사무처장, 이선미 총무이사



각계각층의 성금 이어져

지난 3월,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강원·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대거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인천시가 나섰다. 시민은 물론 기업과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으며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 먼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일노동조합은 김인우 위원장이 쾌척한 100만 원과 조합원들의 뜻을 모은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의 성금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또 산불 재난 복구 지원에 인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배영)는 3월 11일부터 10일간 모금을 전개해 7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어 인천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도 나섰다. 동문회원 100명이

이재민들을 위해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할 것. 인천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유일곤 회장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동문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면서,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에 분주한 인천 사랑의열매 인천의 경제계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소속 42개사는 모금을 통해 1,110만 원,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는 2,720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억 1,000여만 원, 인천도시공사

는 2,000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 공무원들이 7,085만 8,000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지방국세청, 남동구 문학동 새마을부녀회는 물론 시민들까지 성금을 모았다. 인천 사랑의열매로 전달된 모든 성금은 강원·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준 인천의 기업과 단체, 시민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사례하며, “구호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1 (왼쪽부터) 서구시설관리공단 일노동조합 박성후 총무국장,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운 사무처장, 서구시설관리공단 일노동조합 김인우 위원장, 김귀숙 부위원장



2 (왼쪽부터) 인천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송명숙 재무, 조춘재 고문, 유일곤 회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인천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정은섭 부회장

3 (왼쪽부터) 인천 사랑의열매 김은정 팀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우치호 부회장, 이배영 회장,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운 사무처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윤창호 부회장, 박정아 사무처장



1

‘고려인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장학 사업’ 지원 나선
SDB인베스트먼트 조영식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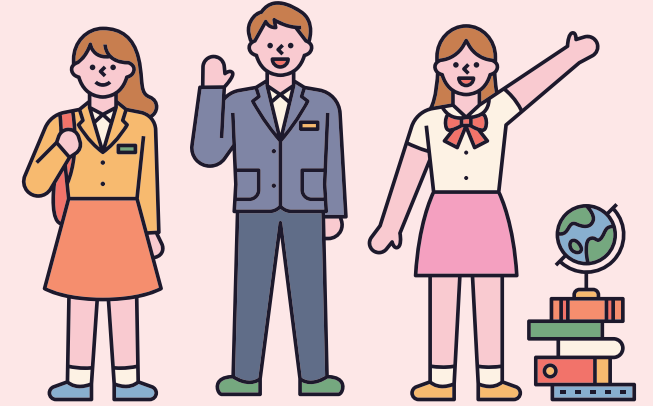
“나눔을 통해 고려인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기부 약정식 기념사진.
(왼쪽부터)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 SDB인베스트먼트 조영식
대표이사, 사단법인 너머 신은철 이사장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7억 2,000만 원 규모의
장학 사업이 진행된다. 나눔을 통해 고려인
청소년·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조영식 대표의 마음이 그 시작이다.

글강은진 사진경기 사랑의열매



맞 올린 장학 사업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7억 2,000만 원 규모의 장학 사업이 진행된다. 바로 사단법인 너머의 ‘고려인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장학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SDB인베스트먼트 조영식 대표이사의 마음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경기 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조영식 대표이사과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 사단법인 너머 신은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약정식이 있었다. 약정식을 통해 조영식 대표는 매월

2,000만 원씩 3년 동안 총 7억 2,0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고, 이는 사단법인 너머로 전달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지원한다. 조영식 대표는 너머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사무실 월세조차 제때 내지 못하던 ‘야학 너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전국 단위 고려인 지원 사업을 펼치는 단체로 성장시켰다.

고려인 미래 세대의 희망 응원해

‘고려인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장학 사업’은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미래 세대 277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사후 관리를 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과 아동 돌봄 및 진로 지원 멘토링,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현재까지 조영식 대표의 기부금으로 사단법인 너머에 배분금 1억 8,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조영식 대표는 “우리 사회 이면에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고려인이 많다”면서, “나눔을 통해 고려인 미래 세대가 이 사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SDB인베스트먼트 조영식 대표는 2013년 경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며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또 부인과 자녀도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가족 회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경기 사랑의열매가 진행한 ‘우리 경기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로 힘을 보태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 ♡

“나눔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건 바로 희망, 고려인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 SDB인베스트먼트 조영식 대표

군부대 최초로 착한일터 가입한 연천군 27여단

군부대 최초 착한일터 1호가 탄생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나눔을 펼쳐온 연천군 27여단이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27여단 착한일터 가입식 모습. 군부대 최초다.



착한일터 1호 군부대는 어디?

군부대 최초의 착한일터가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연천군 27여단이다. 지난 4월 6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27여단 군부대에서 27여단 김주현 단장, 27여단 김경진 부단장,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이 있었다. 이로써 27여단은 연천군 4호이자 군부대 최초로 1호 착한일터가 됐다. 앞서 45명의 군부대 직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사업 '신서 오복주머니' 협약을 통해 정기 기부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이

번 가입으로 기부 참여 인원이 12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이웃을 돕고 자하는 여단 간부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돼 더욱 뜻깊다. 착한일터 가입으로 모은 성금은 연천군 신서면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27여단은 매달 6·25전쟁·베트남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등 봉사 활동뿐 아니라 부사관 150여 명은 지난 2016년부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김장 김치와 반찬, 보행기 등 다양한 물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

연천군 5호로 착한일터 가입한 신서면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이 함께해요!”

연천군 신서면행정복지센터가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무엇보다 전 직원이 참여해 더욱 뜻깊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신서면행정복지센터의 착한일터 가입식 단체 사진

연천군, 착한일터 가입 이어져

연천군 신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승주)가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연천군 5호다. 무엇보다 이번 가입은 신서면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이 나눔에 동참해 그 어느 때보다 뜻깊다. 앞서 연천군 신서면은 지난 2016년 7월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신서 오복주머니' 업무 협약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식사 배달, 난방유 지원, 현관 방충문 설치, 노인 실버카 지원, 여름·겨울 나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펼쳐 도움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주 신서면장은 가입 소감을 통해 “작은 성금이지만 신서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작지만 따뜻한 나눔이 있는 신서면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청산면행정복지센터, 연천읍행정복지센터, 연천군 27여단에 이어 신서면행정복지센터까지 착한일터 가입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



강원 사랑의열매, 2022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특별 모금 진행해

“이재민의 건강한 일상 복귀 위해 마음 모아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이재민을 위해 강원 사랑의열매가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을 진행한 것. 온정이 이어지는 강원도의 소식을 전한다. 글강은진 사진강원 사랑의열매

1 강원여성100인회의 성금 전달식 2 강원도재향군인회의 성금 전달식



산불로 큰 피해 입은 강원도

지난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에서 시작된 작은 산불은 최대 풍속 25m의 강풍을 타고 삼시간에 강원도 삼척 등 동남권 전역으로 번졌다. 연이어 3월 5일 강릉과 동해에도 인재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여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이다. 이번 산불의 피해 면적도 6,383ha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 다음으로 넓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은 망연자실한 채 실의에 빠져 있다. 이에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3월 6일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했다. 거대한 산불

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이재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온정이 강원 사랑의열매로 모이고 있다.

전국의 온정 이어져

지난 3월 28일 강원도재향군인회(회장 권동용)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200여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어 30일에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이 2,000만 원을, 같은 날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회장 김금주)가 1,000만 원을, 회원사 건백산업(주)(대표 유수명)이 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4월 5일에는 사단법인 강원여성100인회(이사장 한경숙)가 회원 126명이 참여해 모은 성금 430만 원을 전달했다. 계속해서 6일에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회장 김익중)가 1,000만 원을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했다. 현재까지 강원도민은 물론 기업이나 단체 등이 모아준 성금·품은 76억여 원(2022년 4월 27일 기준)에 달한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특별 모금에 정말 많은 분이 동참해주셨다”면서,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성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3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 (주)건백산업 합동 성금 전달식
4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성금 전달식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모아주신 성금·품은 물론,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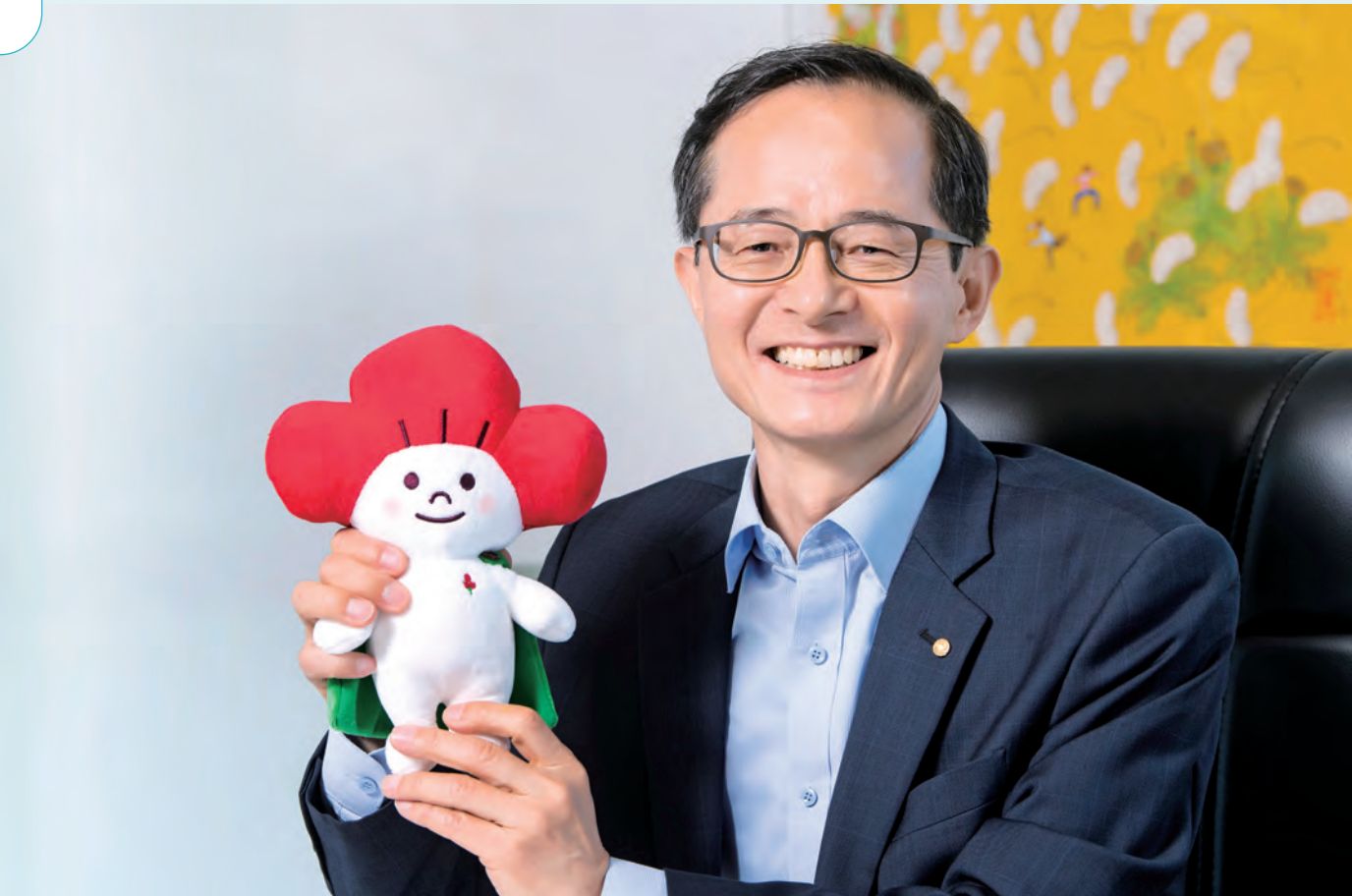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5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사회 공헌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 공기업,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대구를 제2의 고향이라 부를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한국부동산원의 사회 공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대구의 이웃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대구 시대 10년, 한국부동산원이 사회 공헌의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 공기업으로 우뚝 섰다.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에 앞장서면서, 보다 차별화한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대구사랑의열매

대구와 함께한 10년

올해로 대구 시대 10년 차를 맞은 한국부동산원이 이전(移轉) 공공 기관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보다 차별화한 활동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나눔까지 섬세하게 챙겨온 것. 먼저 기관 고유 사업으로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이 대표적이다.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이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취약 계층 이웃들에게 5,500포가량의 쌀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 30개 지사망을 적극 활용해 큰 호평을 받았다.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복지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REB 사랑의 희망박스'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대구 관내 쪽방촌과 지역 아동센터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올해 3월에는 대구 사랑의열매와 대구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의료 물품 및 비상 식료품으로 구성된 희망박스 400개를 지원하며 사업을 이어갔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장애인·독거노인·다문화 가정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한 것.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다할 터

한국부동산원의 사회 공헌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내용과 규모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사업 외에도 의료 기관 마스크·방역복 지원, 아동·노인·중증장애인 시설 정기 후원, 범죄 피해

자 생계 지원 등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 이번 울진·삼척 등 대형 산불 피해 복구 특별 모금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장 먼저 동참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의 나눔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대구 발전에 기여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부동산원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늘 어디를 더 챙기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 한국감정원에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 올해 3월, 대구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재택 치료 키트 'REB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

사랑의 울타리로 전하는 따뜻한 희망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가 '사랑의 울타리' 지원금을 울주군 남부권 지역아동센터 일곱 곳에 전달했다. 이는 지역의 취약 계층 아동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며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울주군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울타리 지원금을 전달한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



— 새울원자력본부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십시일반 마련한 사랑으로 아이들 응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이하 새울본부)가 후원하고, 울산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 사업은 취약 계층 아동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새울본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매년 시행하는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 아동을 위해 사업비를 전달했다. 지난 4월 6일에 열린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민 새울원자력본부장 및 구성원 일동,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 김명자 서생지역아동센터장 및 아동센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한 사업비 3,500만 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러브펀드 성금에 회사의 매칭 그랜트를 더한 민들레후스기금으로 마련했다. 해당 지원금은 울주군 남부권 지역아동센터 일곱 곳 어린이들의 교육과 취미, 정서 함양을 위해 사용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새울원자력본부 이상민 본부장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모범 기업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최고 가치로 삼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사회 공헌 헌장에 따라 새울본부도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섰다. '섬김', '함께', '돌봄', '사랑', '배려'의 테마별 가치를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웃들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다. 또 울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착한기업 100호, 나눔명문기업 4호에 가입하는 등 울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지난해에는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평을 받았다. 🍀

1% 재능을 모아 99% 행복을 만든 특별한 사람들

포항제철소 아름다운 동행 재능봉사단

2011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임직원들이 자신의 급여 1%를 기부하면서 시작한 나눔 활동은 2년 뒤 포스코1%나눔재단으로 거듭났다. 1%가 가져온 놀라운 힘을 경험한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또 한 번 자신들이 지닌 재능을 하나둘 모았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클린오션봉사단



동물보호센터에 간식 및 사료를 지원한 반려동물봉사단

에만 1,793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했으며, 지원 규모도 2021년 3억 8,200여만 원에서 2022년 5억 4,08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꾸준히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재능봉사단만 7개 분야(주거 개선, 교육 지도, 건강, 환경 교통, 문화 예술, 공예, 기계 수리) 36개 팀에 이른다. 자원 활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경량 손수레 제작 및 나눔을 맡은 기술나눔봉사단, 지역아동센터에 물품을 제작해주는 목공예봉사단, 전기수리 봉사단 등 자신의 재능을 심분발휘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마술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박장대소웃음나눔봉사단, 포항시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 돌봄봉사단,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클린오션봉사단 등 특색 있는 활동을 진행 중인 팀도 있다.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현장 조사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새롭게 채워나간다는 점이 특징. 과연 기업 사회 공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아깝지 않다. 🍀

취미와 재능을 살린 자원봉사 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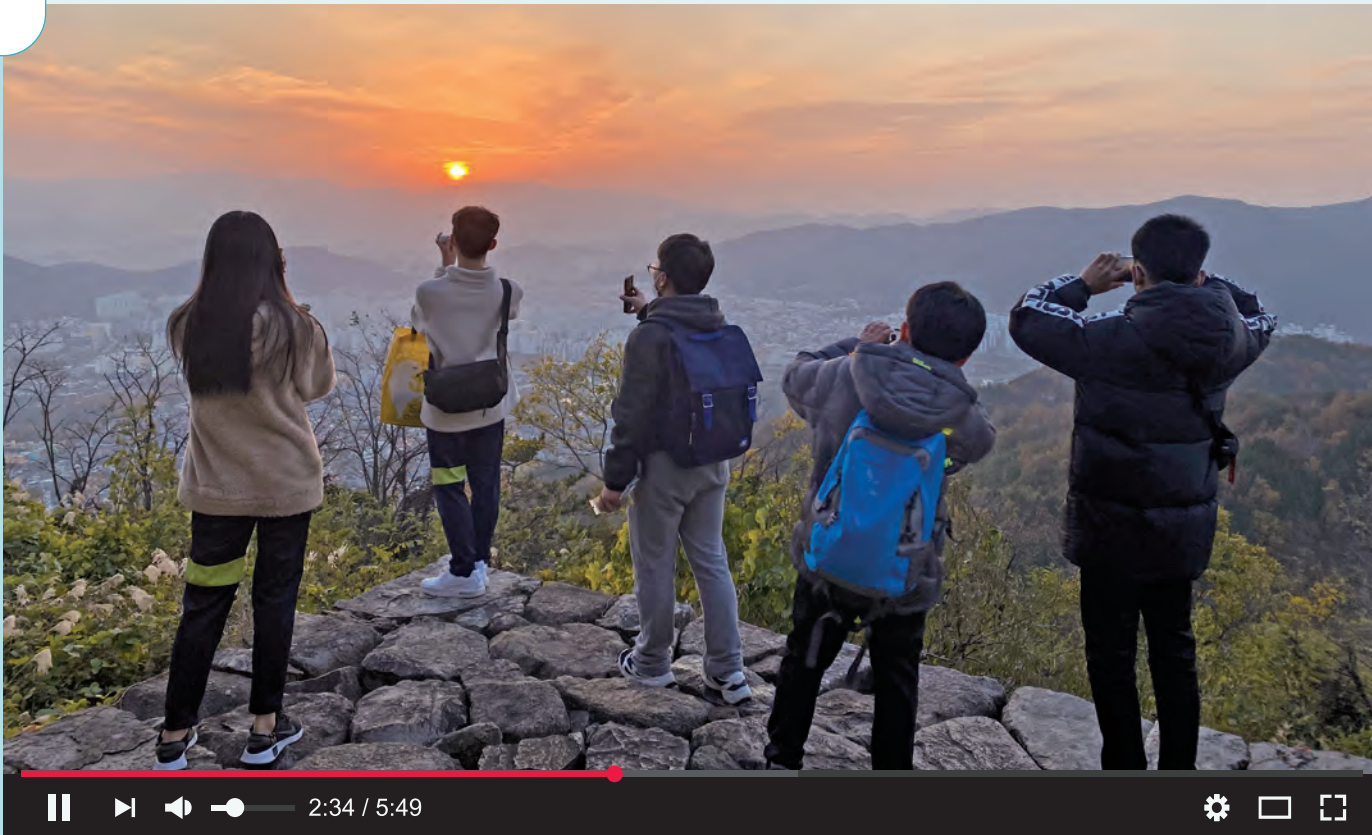
1968년 4월 1일 포항에 국내 최초의 종합제철소를 건립하며 포항제철소가 탄생했다. 이후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지식을 지닌 재능봉사단의 활동은 단연 독보적이다. 맞춤형 전문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만족도는 물론, 참여하는 봉사단원의 자긍심도 높다. 특히 재능봉사단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단원의 취미와 재능을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일상 속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단순한 양적 활동 중심의 자원봉사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를 추구하며 포항제철소만의 봉사 활동을 구축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7개 분야 36개 팀이 다양한 나눔 활동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은 2019년 7월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임직원의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한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금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해 나눔 협력 기관인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의 효과 높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한 해



자원 활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경량 손수레를 제작한 기술나눔봉사단



— 김해 삼방동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청소년들

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

“영상을 찍으며 알아가는 우리 동네의 진면목”

2020년 인터넷 이용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9.2%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은 유튜브를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에 경남 사랑의열매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며 우리 동네를 알아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김해청소년방송국 '김청TV' 유튜브 채널 QR코드

청소년이 주도하는 창의적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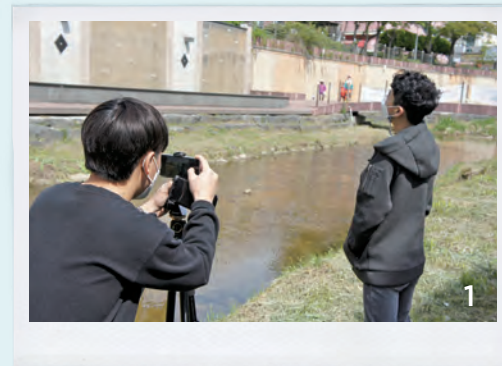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인 1318 Happy Zone 김해 사과나무(이하 김해 사과나무)는 지난 2018년 경남 사랑의열매 방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기초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사업 종료 후 김해 사과나무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제작하며 참여 청소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습득한 기초 지식으로는 영상 제작의 한계를 느꼈다. 이에 지난해 신청사업 공모를 통해 김해 사과나무는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 영상.통.화-우리 동네 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문가의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해 주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했다.

찍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우리 동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27명의 참여 청소년은 김해 사과나무가 위치한 김해시 삼방동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 기획 및 운영, 촬영 및 편집, 콘텐츠 제작 등을 세세하게 배우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삼방동 구석구석을 영상에 담았다. 전통시장인 삼방시장, 가야테마파크 등 관광지

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유용한 생활 정보와 지역 주민 인터뷰 등 '우리 동네'의 구석구석을 다양하게 담고자 노력했다. 유튜브 채널 김해청소년방송국 '김청TV'에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며 지역 주민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맡는 것은 물론, 세대 간 긍정적 인식 변화까지 가져왔다. 또 향상된 영상 제작 기술로 '삼방시장-UCC 콘테스트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에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뉴스와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는 등 더욱 향상된, 그리고 더욱 빛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활발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



1 동네 구석구석을 다양하게 촬영 중인 청소년 크리에이터들
2 가야테마파크 등 관광지를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제작했다.



전국 최초·최다 공동 가입, 누적수 최다 돌파

나눔 대기록을 세운 나눔명문기업의 도시 부산

지난 4월 부산 지역 15개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에 공동 가입했다. 이로써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나눔명문기업을 보유하며 '나눔도시'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15개 기업의 나눔명문기업 공동 가입식 모습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열어줍니다.
부산 기업인들이 함께 만든
아주 크고 아름다운 길에
동행할 수 있어 기쁩니다.”

- (주)국제식품 정창교 회장

나눔명문기업의 새 역사를 열다

지난 4월 12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신정택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에서 나눔명문기업 15곳의 공동 가입식이 진행됐다. 2019년 BNK부산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3곳의 기업이 가입하는 등 부산 나눔명문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15개 기업의 공동 가입은 전국 최초 사례이며, 또한 나눔명문기업 가입 중 최다 기록이다. 또한 부산 지역의 나눔명문기업 누적 수는 38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나눔명문기업을 보유한 도시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모두의 힘을 합쳐 나눔 일등

부산 사랑의열매는 나눔명문기업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독려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15곳 공동 가입식에는 나눔명문기업이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실천에도 동참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공동 가입식에서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나선 기업들 덕분에 나눔 일등 부산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정택 고문은 “중견·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 못지않은 나눔의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의 기업인으로서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부산이 보여준 나눔 저력에 비춰볼 때 나눔명문기업 신기록 행진은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부산 나눔명문기업에 공동 가입한 15곳

- 24호 은산해운항공(주)(양재생 회장)
- 25호 선보유니텍(주)(김창욱 대표이사)
- 26호 (주)디알종합건설(황익순 회장)
- 27호 (주)세강(이경신 회장)
- 28호 (주)라움팰리스(이진수 회장)
- 29호 보성신항물류(주)(최성식 회장)
- 30호 (주)대한이엔지(박대지 대표이사)
- 31호 (주)푸드웨이(변기규 대표이사)
- 32호 (주)국제식품(정창교 회장)
- 33호 양산컨트리클럽(주)(박창현 회장)
- 34호 의료법인나라의료재단(최영호 이사장)
- 35호 (주)대방건축사사무소(서상구 대표이사)
- 36호 (주)프라이믹스(이인 대표이사)
- 37호 수근종합건설(주)(성석동 회장)
- 38호 (주)와이씨텍(박수관 회장)

“건축물도 혼자 우뚝
서면 볼품이 없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좋은 건축이듯,
사람도 주변과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 (주)대방건축사사무소 서상구 대표이사

5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직원들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나눔을 이어간다고 말하는 (주)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기업인, (주)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행복을 꿈꾸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직원들은 그를 ‘구름 속에 있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늘 꿈꾸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해 직원들이 행복해지는 꿈, 나눔을 통해 이웃이
행복해지는 꿈을 말이다. (주)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이야기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이어진 수상, 모두 직원들 덕분
(주)나우코스 노향선 대표를 만나고 여러 번 축하 인사를 전해야 했다. 지난해 제7회 사랑의열매 대상 기부 부문 희망장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제49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모범 상공인 부문 산업포장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가정의 달 5월에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으니 겹경사라 할 만하지 않은가.
“표지 모델을 제안받고 너무 과분한 것 아닌가 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도 했고요.(웃음) 그래도 사랑의열매는 사회에 헌신하는 기

관이라 영광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노향선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축하 인사는 (주)나우코스 임직원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렸다. 혼자서 한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 말이다. 자신을 낫추는 노향선 대표를 보니, 왜 그가 사업을 시작한 후 세종시 기업인 대상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영예로운 상을 숭하게 수상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놀라운 착한일터 기부 참여율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위치한 (주)나우코스는 지역사회 나눔을 선도하고 있

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본사가 자리한 전의면과 제2공장이 있는 소정면에 거주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종시는 물론 최초 집단 발생지인 대구광역시, 코호트 격리 시설을 설치한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비롯해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회사의 영업이익보다는 후원 물량부

터 확보한 이야기는 내내 회자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복지 기관에 정기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 집 청소, 노인 반찬 지원, 지역 아동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직원들과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세종 7호 착한일터에 가입한 후, 100%에 달하는 직원 기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다. “우리 회사는 입사할 때 소액이라도 기부 약정서를 써요. 액수를 떠나 나눔은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안 해보면 못

해요. 그래서 꼭 우리 직원들에게만큼은 기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법정 관리 상황에서도 나눔 이어가

2000년 3월에 설립한 (주)나우코스는 글로벌 화장품 OEM·ODM 전문 기업이다. 창의적 상품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에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보디, 펫 제품 등 뷰티 전 제품군을 공급하며 2020년 코빅스 상장에도 성공했다. 이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렇듯,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2009년에는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그야말로 최대 위기를 맞기도. 그러나 노향선 대표는 중단 없이 나눔을 이어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법정 관리라고 하지만, 망한 거죠. 실제로 망한 거니까요.(웃음) 회사가 빌린 모든 돈은 대표인 제가 보증을 서니까, 살던 집도 경매로 다 넘어가서 작은 월셋집으로 이사도 가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망했지만, 망할 거란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못 했어요. 그



1 전국적으로 후원한 방역 물품 전달식
2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냥 헤쳐나갈 생각만 했어요.” 노향선 대표는 고객들과 협력 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며 상황을 정면 돌파해나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회생 절차를 단 3년 만에 조기 종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켰다. 아니 시켜냈다. 나눔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간 것도, 망했지만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면서 말이다.

구름 속에 있는 사장님

노향선 대표는 무엇보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 창업을 결심했을 때도 망하면 배추 장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도,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도 별다른 동요 없이 이사 날짜만 미리 알려달라고 침착하게 대처해준 사람도 모두 아내였기 때문이다.

“망했어도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건 아내 덕분인 것 같아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니 ‘그래? 그럼 이사해야겠네’가 반응의 전부였거든요. 나눔 또한 저보다 더 적극적이고요.

노향선 대표는 언제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그가 사업을 하는 이유이자 나눔의 이유다. 그래서일까, 직원들은 그를 ‘구름 속에 있는 사장님’이라 부른다. 늘 새로운 걸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의 꿈꾸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가 만들어낼 구름 속 세상을 꼭 보고 싶기 때문이다. ❀

“저는 기부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기부할 기회가 많으니, 꼭 한번 경험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삶이 무척 즐거워지니까요.”

—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다 (주)나우코스를 창업한 노향선 대표는 화장품업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한국철도형 사회 가치 구현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ESG 코레일

코레일은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적·체계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쳐왔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최근에는 ESG 경영을 선포했다. 이제는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ESG 코레일' 시대가 열렸다.

글 이선희 사진 대전사랑의열매

3월 29일에 진행된 코레일의 ESG 경영 선포식



ESG 경영을 선도하는 코레일의 변화

지난 3월 29일 코레일(사장 나희승)이 ESG 경영(환경·사회·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전략)의 본격적 실천을 선언했다. 대전 본사에서 열린 ESG 경영 선포식에서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ESG 코레일'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한 것.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교통 체계로서 철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철도, 공정과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코레일의 ESG 경영 행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3,0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며 전기철도 차량 구매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 것은 물론, 전담 부서인 ESG 경영처를 신설하는 등 경영 전 분야에 ESG 관점을 도입하며 주목받았다. 더욱이 코레일은 현장 밀착형, 업(業) 특성 기반, 사회 가치 구현이라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전문적·체계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음에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코레일에 따뜻한 박수가 쏟아지는 이유다.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언제나

ESG 경영으로 전면 재편되기 이전부터 코레일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기탁해 250여 건의 시설 및 개인을 지원하며, 지역

“철도의 강점인 친환경성을 기반으로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에 앞장서고, 공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신뢰 경영에 힘써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 코레일 나희승 사장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선 의료인에게 전달한 응원 키트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대전 내 공기업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끝없는 나눔을 실천하는 중이다. 또 매년 1만 명 이상의 소외 계층과 임직원들이 기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해피트레인' 사업, 임직원의 재능을 발휘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내일(Rail)-하우스', '1사 1촌 활동',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등 대표적 사회 공헌 사업도 수년째 이어오며 기업의 바람직한 사회 공헌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

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제공했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3억 원을 기부했으며,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KTX와 일반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그간 나눔 경영으로 보여준 활동에 비취볼 때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기업으로 도약을 약속한 ESG 코레일이 만들어갈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모은다. ♣

창단 10년 차, 지역 밀착형 봉사의 모범이 된 진천군나눔봉사단

“이웃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터”

충북 사랑의열매 진천군나눔봉사단이 창단 10년 차를 맞았다. 이웃과 함께한 10년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충북 사랑의열매

창단 첫해부터 연말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를 진행해온 진천군나눔봉사단



진천군 나눔문화 이끈 10년

충북 사랑의열매 진천군나눔봉사단이 올해로 창단 10년 차를 맞았다. 2013년 조직된 이래 다양한 활동으로 진천군 나눔문화를 이끌며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냈다. 그 중심에는 연말 희망나눔캠페인이 있다. 진천군나눔봉사단은 창단 첫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천군 7개 읍·면의 주요 기관과 기업, 단체를 찾아 순회 모금 행사를 진행하며 충북 사랑의열매 사업을 홍보해왔다. 또 2015년부터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까지 모두 203개(2022년 4월 기준)의 착한가게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뿐 아니라 2017년부터는 진천군 대표 축제인 ‘생거진천문화축제’와 ‘농다리축제’에 참여해 모금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축제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운영해 각종 체험 활동과 바자회 및 현장 모금함 등을 운영하고, 수익금 전액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해온 것. 2018년 3월부터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에 진천군노인복지관 점심 배식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1 휴경 논 경작 백미 기부 기념사진
2 진천군 착한가게 100호 가입 기념식

지역 밀착형 봉사돌보이

진천군나눔봉사단의 활동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봉사라는 점이다. 진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를 돕는 일손 봉사가 대표적이다. 휴경 논 경작 백미 기부도 있다. 2019년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진천군 삼덕리 휴경 논에 단원들이 직접 벼농사를 지어, 대한노인회충북진천군지회를 통해 700kg의 쌀을 진천군 7개 읍·면 분회 경로당에 전달한 것. 기부자 관리도 밀착 그 자체다. 2017년 12월부터 기부자 만찬에 기부자를 초청, 그간의 모금과 배분 현황 등을 보고하며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왔다. 진천군나눔봉사단은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김근태 진천군나눔봉사단장은 “10년째 헌신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원들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모금 전문 봉사단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나눔과 함께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지역을 대표하는 모금 전문 봉사단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 진천군나눔봉사단 김근태 단장

지역사회 나눔문화 선봉장으로 우뚝 선 천안시나눔봉사단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눔 정신으로 가득합니다!”

충남 사랑의열매 천안시나눔봉사단의
활약이 눈부시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봉사단’까지 발족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글 강은진 사진 충남 사랑의열매



1 공병 수거 및 분리 봉사 모습 2 어린이봉사단 발대식 기념사진

전국 최초, 어린이봉사단 발족

천안시 나눔의 중심에는 충남 사랑의열매 천안시나눔봉사단이 있다. 2016년 발족한 후 6년 동안 천안시 이웃들을 위해 기부 및 봉사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봉사단’을 발족하며 화제를 모았다. 평소 나눔봉사단 단원 자녀들을 중심으로 매월 1회 부모와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비롯해 겨울철 연탄 봉사와 공병 수거 및 분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정식으로 어린이 단원들이 주축이 된 어린이봉사단 발족을 추진한 것. 한동훈 천안시나눔봉사단장은 “다

“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나눔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봉사단과 풀뿌리 나눔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천안시나눔봉사단 한동훈 단장

3 발대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어린이봉사단원
4 이벤트 모금 행사



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나눔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어린이봉사단과 함께 풀뿌리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린이봉사단은 천안시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용돈 저축 기부와 이웃 돕기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착한가게·착한ilter 적극 발굴해

천안시나눔봉사단은 착한가게·착한ilter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2016년 발대식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2개 착한가게와 24개 착한ilter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병천 순대거리를 충남 1호 착한거리로 발굴하며 지역 골목 상권의 18개소를 착한가게 단체 가입으로 이끌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천안시 청 복지정책과를 포함 6개 부서와 농협은행(주) 천안시지부, 농협은행(주) 천안시청출장소, 부성2동행정복지센터, 천안지역자활센터 등 지자체와 연계해 착한ilter 단체 가입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원들이 직접 천안시 관내 점포에서 공병을 수거 및 분리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지역 내 거리 환경미화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며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천안시나눔봉사단이다. ♣



5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제주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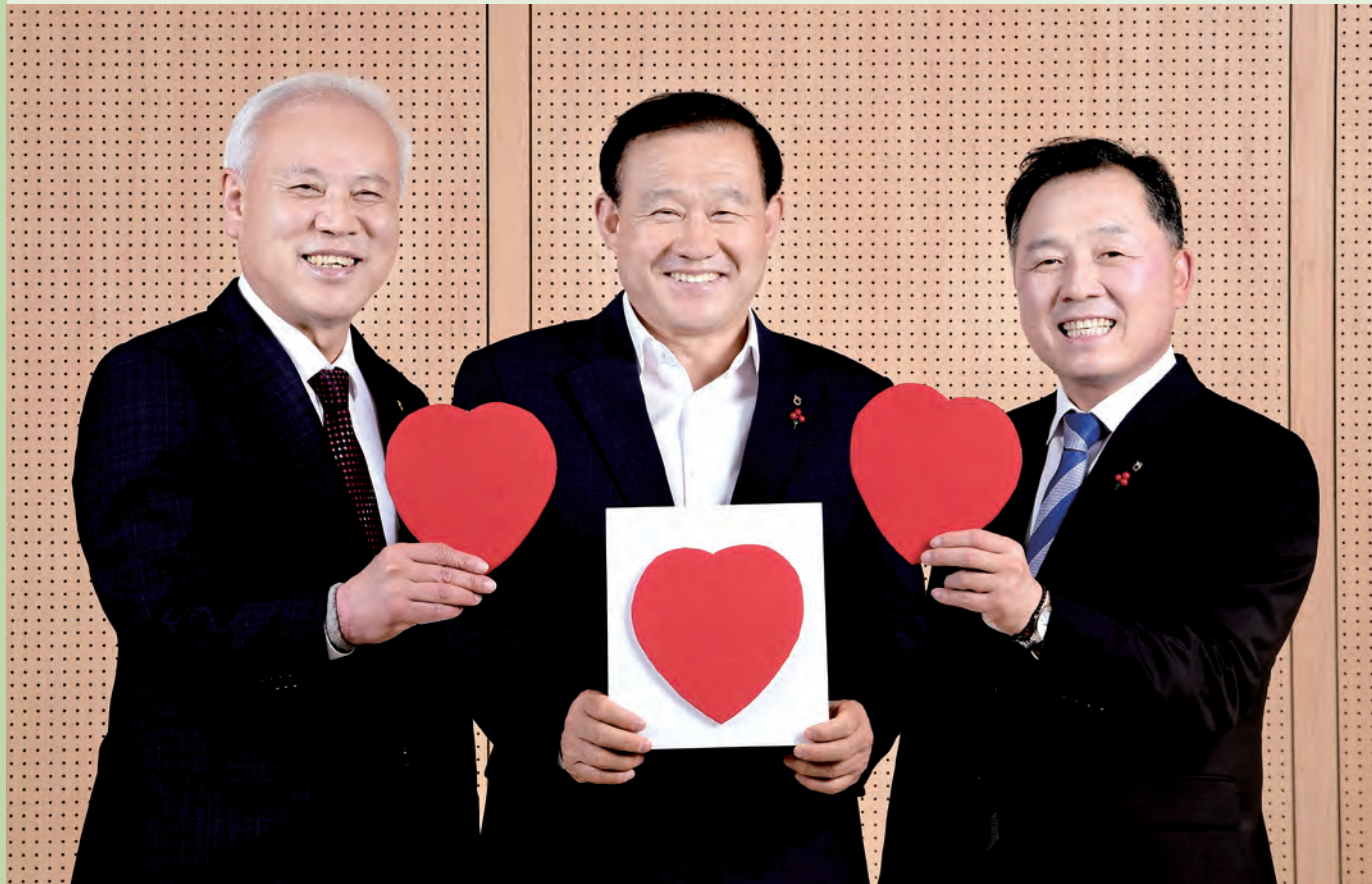
따로 또 같이 전하는 따뜻함

제주농협의 일석삼조 사회 공헌 활동

누구나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 저마다 애정이 있겠지만, 유독 제주도민들의 애향심은 지극하다. 이는 이웃을 살피는 마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제주 사랑의열매에 굽직한 기부자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일 터. 그중에서도 제주농협의 사회 공헌 활동은 단연 눈에 띈다. 일석삼조 효과를 내는 제주농협의 다양한 나눔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제주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제주농협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이끄는 제주시농협 고봉주 조합장,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강승표 본부장,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



제주농협의 행복나눔
성금 기탁식

전국 농협 중 최초로 나눔명문기업 가입

지난해 7월 23일 제주농협은 제주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이는 전국 923개(2021년 1월 기준) 지역농협 중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최초 사례이며, 제주에선 (주)제주속으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가입식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강승표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제주농협이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주농협이 기탁한 성금 1억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이 휴식기에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130세대에 창문형·이동형 에어컨으로 지원했다.

행복을 모아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다
제주농협은 매년 제주 사랑의열매에 임직원과 농축산인이 자발적으로 조성

한 행복나눔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2,500여 명의 임직원이 조성한 성금 2억 9,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33억 7,500만 원을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행복나눔 성금은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데, 특히 희망

Dream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희망과 소원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육상 선수에게 스포츠 활동 물품 구입비, 동화 작가 지망생에게는 동화책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 8년간 총 345건의 소원이 이루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제주농협이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강승표 본부장



졌다. 이 외에도 도내 아동·청소년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랑의 공부방 사업, 명절 상차림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폭넓게 사용한다.

농가를 살리는 맛있고 건강한 나눔

농협은 1961년 창립 이후 이 땅의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제주농협 역시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농업·농촌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 농산물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난 2월에는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전국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에 6,000만 원 상당의 레드향을 기부하는 한편, 최근에는 저장 양파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햇양파를 구입해 소외 계층 이웃에게 전달했다.

곳곳에서 힘을 보태는 지역농축협

지역농축협별 사회 공헌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농협 하나로마트협의회는 지난 3월 제주 사랑의열매에 공익 기금 3억 9,100만 원을 기탁했다. 지역사회와 상생·공존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하나로마트 수익 중 일정액을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 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내 요식업소에 농산물

“지역농협으로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지역상생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시농협 고봉주 조합장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 제주양돈농협 고관진 조합장



— 제주농협에서 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한 사랑의 감귤

을 무상 또는 할인 지원했으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누적 금액 61억 3,500만 원을 출연하는 등 소상공인을 돕고자 했다. 제주시농협은 고령 조합원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청년부 벌초 대행 사업, 농업 경영 향상을 위한 법률·세무 상담, 학생 대상 금융 교육 활동, 중고 도서 나눔 및 기부 활동 등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주 양돈 농가들은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돼지가 태어나서 다시 새끼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230일간 릴레이 방식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 캠페인 기간 동안 170개 양돈 농가의 나눔 릴레이로 1억 600만 원이 모금됐다. 해당 성금은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했다. 이 외에도 양돈장 주변 환경 정화, 마늘 농가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아낌 없는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 기업 중흥그룹

중흥그룹이 최근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형 건설 그룹 반열에 올랐다. 이번 도약을 계기로 그동안 중흥그룹이 이어온 사회 공헌 활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광주 사랑의열매



1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전달식 2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중흥그룹 정원주 부회장과 부인 이화진 씨

나눔 경영으로 일군 광주 1호 패밀리 아너
중흥그룹은 1983년 광주에서 중흥주택을 모태로 시작해 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간 탄탄한 건설 그룹이다. 최근에는 10년간 주인 없이 표류하던 대우건설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건설 그룹으로 우뚝 올라섰다. 눈부신 도약에는 창업주 정창선 회장의 남다른 나눔 경영 철학이 한몫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중흥그룹은 지역은 물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회장 일가의 개인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창선 회장을 필두로 일가가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중흥그룹 정원주 부회장이 2014년, 부인 이화진 씨가 2016년에 각 아너에 가입을 했다. 이어 정창선 회장과 부인 안양임 여사가 나란히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광주 최초 패밀리 아너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솔선수범

지난 3월 10일 중흥그룹은 경북, 강원 등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에 2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성금 기탁에는 얼마 전 한식구가 된 대우건설도 뜻을 모아, 양사 첫 공동 기부 행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광주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물론, 2020년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전국 곳곳에서 주택 전시관을 개관할 때마다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이나 기부금을 해당 지역의 소외 계층에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나눔 활동이다. 10여 년 동안 이어온 만큼 지금까지 100번이 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성금 지원, 중흥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흥그룹의 나눔 활동 역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

“앞으로도 꾸준히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 기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



희망2020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에서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왼쪽)과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시즌 2

“따뜻한 마음을 지닌 지역사회 리더들과 함께합니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2021년을 ‘나눔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나눔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사회 리더들의 나눔 실천을 이끌어낸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였다. 지난해 성공을 밑거름 삼아 올해도 다시 한번 100인의 나눔리더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글 이선희 사진 전북 사랑의열매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시즌 2에 참여한 5명의 나눔리더 가입식



하나를 나눠 두 배 따뜻해진 전북

지난 4월 12일 전주연탄은행 후원자 강원민 씨를 비롯해 5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시즌 2(이하 100인의 나눔리더)’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함께한 5명의 나눔리더는 “하나를 나누면 도움을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해진다”며 단체 가입에 나섰다. 사실은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100인의 나눔리더는 지난해 전북 사랑의열매가 처음 선보인 나눔캠페인이다.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인 나눔리더 100인을 모아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시작으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등 전북 내 명망 높은 리더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덕분에 당초 목표한 100인을 훌쩍 넘어 117명이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은 단순히 새로운 개인 기부자를 발굴해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캠페인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아이들을 지원해 더욱 의미가 깊다. 실제로 지난해 모은 성금 1억 원은 아동·청소년 공성장 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전북아동복지협회와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에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했다. 전북아동복지협회는 생활 시설 아이들의 교육 훈련비, 대회 참가비, 자



지난해 두 기관에 전달한 아동·청소년 공성장 지원 사업 지원금

격·기술 취득비,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역아동센터별 프로그램 강사비, 대회 참가비, 악기 구입비 등을 지원해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공성장에 참여한 아이들이 보인 변화는 놀라웠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전북 사랑의열매는 100인의 나눔리더 두 번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할 진짜 리더들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

“하나를 나누면
도움을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시즌 2에 참여한 나눔리더들

임직원이 '한뎛'으로 이룬 The Best 착한일터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뎛회봉사회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뎛회봉사회가 The Best 착한일터에 이름을 올렸다. 게다가 1999년 발족할 때부터 지금까지 외부의 도움 없이 임직원 참여 기금으로만 운영한다는 사실. 올해로 23년 차에 접어들며 여전히 하나 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우직한 한뎛회봉사회다.

글 이선희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국 사무처장,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뎛회봉사회 김종락 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The Best 착한일터 현판 전달식



작은 사랑이 모여 만든 태산같은 나눔

지난 3월 17일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한뎛회봉사회 'The Best 착한일터' 현판 전달식이 있었다. The Best 착한일터는 사랑의열매의 전국 착한일터 중 가입 후 3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전체 직원 50% 이상 참여)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국 사무처장이 건네는 현판을 받은 한뎛회봉사회 김종락 회장과 회원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온전히 회원들의 힘으로만 일군 의미 있는 성과이기 때문. 2011년부터 매년 300여 명의 임직원이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나눔에 동참해 현재까지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기부금만 4억 2,000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기부금은 모두 임직원 참여 기금으로만 조성했다. 300여 명의 임직원이 한뎛으로 매달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 기금으로 모았고, 매년 연말마다 사랑나눔호프데이 바자회 행사를 열어 성금을 더했다. 이렇게 1년 동안 살뜰하게 모은 약 4,500만 원의 기금은 모두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

한뎛회봉사회가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한 성금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누군가에겐 당장 절실함을 달랠 수 있는 기초 생계비로, 아픔을 줄여주는 의료비로,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장학금 등으로 쓰였다.



1 한뎛회봉사회는 순천과 1사 1촌을 맺었다.
2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한뎛회봉사회 회원들

그렇게 소외된 이웃 40세대에 귀한 사랑이 전해진 것이다. 현재 많은 회원이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한뎛회봉사회의 시작은 고작 20명에 불과했다. 1999년 3월 순천공장 근무자들이 결식아동을 돕고자 한뎛회봉사회를 발족한 것. 이후 봉사회의 취지와 회원들의 진심이 알려지면서 동참하는 직원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장학 사업을 진행하거나, 회원들이 조를 편성해 무료 급식소

에서 매일 배식 봉사를 하는 등 활동의 폭도 넓어졌다. 한뎛회봉사회가 발족한 지 어느덧 23년째다. 이제는 순천에서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나눔을 실천 중이다. 이제는 사내 봉사 모임이 아니라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회 공헌 활동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뎛회 봉사회. 앞으로 이들의 나눔이 지극처럼 우직하고 정직하게 이어지길 바란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2859호 (서울 355호)



김지현 엑시트윈 대표

“나눔이란 어려운 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국 2872호 (대구 201호)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힘든 일이 닦혔을 때 서로 함께 힘을 모으면 시너지가 발생해 혼자일 때보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국 2876호 (광주 135호)



정지윤 광주 YWCA 前 회장

“남편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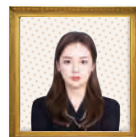
전국 2879호 (광주 136호)



이민 화가

“예술가의 길을 걷는 게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 저의 기부가 예술가의 나눔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2880호 (부산 255호)



최찬비 세움엔터테인먼트 대표

“살아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전국 2881호 (대구 203호)



조재곤 (주)영풍 대표이사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을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해나가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전국 2882호 (부산 256호)



최광식 경상남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나눔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들 행복해지길 희망합니다.”

전국 2883호 (충북 66호)



강성수 성우파일(주) 이사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소망합니다.”

전국 2885호 (충북 67호)



최찬순 청주PVC상사 대표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2886호 (경북 142호)



우성봉 국제변호사

“어릴적부터 외국에서 생활해오다보니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어, 고향인 안동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전국 2887호 (경남 143호)



고안준호 현대건설(주) 책임

“여유가 있을 때 기부를 하겠다는 생각이면, 평생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전국 2888호 (서울 358호)



강상호 DUPONTE&I

반도체사업부 대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전국 2890호 (중앙 363호)



송효민 (주)에이치엠인터내셔널 부대표

“할 수 있는 한 기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전국 2896호 (중앙 364호)



이정은 대방건설 골프단 골프 선수

“앞으로 좋은 경기로 많은 기부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울산 조희숙 코리아에터보(주) 대표이사 경기 박찬광 제일장례식장 대표이사

중앙회

삼성 희망디딤돌 경북센터 개소

지난 4월 21일 삼성과 사랑의열매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의 아홉 번째 센터인 경북센터를 개소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매년 2,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이루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 희망디딤돌은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주거 공간 제공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삼성의 사회 공헌 사업이다. 올해 개소를 앞둔 전남센터를 포함해 전국 10개 센터를 건립·운영 중에 있다. 희망디딤돌 경북센터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북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폭넓은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박학규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디딤돌을 발판 삼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삼성 임직원 모두가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문자 투표 수익금 전액 기부

종합편성채널 TV조선(대표 김민배)이 <내일은 국민가수> 결승 생방송 문자 투표 수익금 전액인 1억 7,568만 372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지난 4월 13일 진행된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녹화 현장에서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자인 박창근과 출연진이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기부금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쓸 예정이다.

TV조선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통해 마련한 성금인 만큼, 사회 필요한 곳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TV조선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청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TV조선은 2020년 <내일은 미스트롯> 결승전 문자 투표 수익금 3억 3,916만 4,687원, 2021년 <내일은 미스트롯 2> 결승전 문자 투표 수익금 2억 6,899만 916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해 총 7억 8,383만 5,975만 원을 기부했다.

선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청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TV조선은 2020년 <내일은 미스트롯> 결승전 문자 투표 수익금 3억 3,916만 4,687원, 2021년 <내일은 미스트롯 2> 결승전 문자 투표 수익금 2억 6,899만 916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해 총 7억 8,383만 5,975만 원을 기부했다.

서울



레드캡투어, 산불 피해 구호 성금 2억 원 쾌척

레드캡투어(대표 인유성)가 강원·경북 지역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의미로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인유성 대표이사는 "피해 주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야구 선수 채은성, 아동 운동화 484켤레 선물

LG트윈스 채은성 선수가 재단법인 유더스타스포츠와 함께 서울 사랑의열매에 3,7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484켤레를 기탁했다. 운동화는 서울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20개소의 아동들에게 선물했다. 전달식 당일 채은성 선수는 참석한 아이들과 함께 야구 게임을 즐기는 등 잊지 못할 추억도 선사했다. 그는 "아이들이 이 운동화를 신고 건강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 11개 기업, 산불 피해 돕기 성금 기탁

동해안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부산 지역 11개 기업이 1,000만 원씩 모아 총 1억 1,000만 원의 성금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참여 기업은 세운철강(주), (주)세강, 은산해운항공(주), (주)코렌스, 송우산업(주), (주)대원플러스그룹, (주)아이제이동수, (주)파나시아, (주)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선보공업(주) 10개 기업과 와이씨텍 박수관 회장 개인이다.



화승그룹, 부산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5대 지원

화승그룹(회장 현승훈)이 부산 지역 사회복지 기관 5개소에 차량을 전달했다. 화승그룹이 기탁한 희망2022나눔캠페인 성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차량 구입에 사용했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승합차·냉동 탑차 등 기관에서 희망하는 차종을 지원했다. 화승그룹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 후원, 화승꿈틀프로젝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비롯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구



대구 아내 소사이어티 봉사회, 산불 구호 성금 전달
 대구 아내 소사이어티 봉사회(회장 안중수) 회원들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마음을 담은 성금 2,4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태원씨앤씨건설 대표이사인 안중수 봉사회장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주민들 이웃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문창,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앞장
 스테인리스스틸 물탱크 전문 제조업체 (주)문창(대표이사 문성호)이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성금 3,0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저소득 주민에게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문성호 대표이사는 “코로나19에 산불까지 덮쳐 시름이 깊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인천



2022 이웃 돕기 유공자 포상식 개최
 지난 4월 5일 인천 사랑의열매가 인천시청에서 ‘2022 이웃 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이번 행사에서는 총 39명이 영예로운 상을 받았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마음을 가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포스트코로나 복지 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 지원금 배분
 인천 사랑의열매가 2022년도 포스트코로나 복지 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에 총 6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안전한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해왔으며, 3년간 누적 배분금은 총 14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엔 110개소를 지원 기관으로 선정해 장비 보강 및 시설 개·보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



희망2022 사랑의 학교모금 성금 전달식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광주 사랑의열매에 ‘희망2022 사랑의 학교모금’ 캠페인 성금 667만 2,450원을 전달했다. 캠페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으며, 광주 관내 초·중·고 25개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성금은 광주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민 화가, 아내 가입으로 따뜻한 나눔
 이민 화가가 광주 사랑의열매 136호 아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은 광주 전남 지역 1호 예술가 아내의 탄생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2018년 12월 고향 광주에서 열린 개인전을 계기로 작품 판매 수익금을 모아 1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는 이민 화가의 기부금은 미혼모 시설 세 곳에 전달했다. 그는 “저의 기부가 예술가의 나눔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



(주)진합, 산불 피해 주민 위한 성금 전달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주)진합(대표 이원준, 김용철)이 대전 사랑의열매에 강원·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서 김용철 대표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재민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 356-B지구 태원라이온스, 나눔 동참
 봉사 단체인 국제라이온스 356-B지구 태원라이온스(회장 한원규) 회원들이 1,500만 원을 기탁하며 대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1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원의 거주 시설인 행복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로 전달했다. 한원규 회장은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울산



SM그룹 삼라희망재단, 에너지 나눔 성금 1억 원 지원
 SM그룹 삼라희망재단이 '우리 울산 에너지 나눔캠페인' 지원금 1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울산 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 계층의 추위와 더위를 해소하기 위한 냉방기 및 난방용품 200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캠페인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혹서·혹한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와 울산 사랑의열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행복꾸러미 배달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가 2014년부터 남구 지역 복지 사각지대와 중장년 고립 가구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행복꾸러미 사업 지원금 4,0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사)울산시남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생필품 구입에 사용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생필품을 담은 행복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배달했다.

경기



유구엔지니어링 이유영 회장, 아너가입으로 나눔 실천
 유구엔지니어링 이유영 회장이 꾸준한 나눔으로 기부금 1억 원을 달성해 경기 283호 아너 회원이 됐다. 그동안 기탁한 성금은 수원에 있는 연무정 무료 급식소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이유영 회장은 "복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돈으로 돕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여생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故 김현수 씨, 나눔리더 가입
 지난 2월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아들 배영찬 씨가 어머니故 김현수 씨 이름으로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했다.故 김현수 씨는 경기 107호 나눔리더로 이름을 올렸으며, 성금은 노인 의료 복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배영찬 씨는 "늘 이웃을 생각하고 베풀려던 어머니의 삶이 나눔으로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스타필드 고양점,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후원
 스타필드 고양점(점장 강필서)이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중위 소득 80% 이상인 세대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추천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정하고 100만 원씩 지원했다.



파주상공회의소, 희망+ 온돌사업 기부금 전달
 파주상공회의소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희망+ 온돌사업 기부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 희망+ 온돌사업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부금은 파주시 읍·면·동 추천을 받아 퇴원 돌봄, 우리동네 운동방, 어르신동네복지사, IoT 스마트 안전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강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산불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강원 사랑의열매에 산불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 성금 7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권부천 사무총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며 정성을 보탤"고 위로를 전했다.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강원도체육회, 성금 기탁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회장 김덕호)가 500만 원,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가 100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양희구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주)태인,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전달
 (주)태인(회장 이인정)이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태인 김재덕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 있는 상황에서 대형 산불로 고통받은 강원과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다스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태인은 충북의 체육 꿈나무를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체육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국공립 리버파크자이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나눔
 국공립 리버파크자이어린이집(원장 조성순)이 바자회를 개최하고 발생한 수익금 전액인 96만 7,500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바자회는 원아들에게 자원의 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성순 원장은 “이번 기부로 원아들이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육군본부 계룡사랑후원회,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육군본부 계룡사랑후원회가 충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4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계룡사랑후원회는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장병·군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011년부터 매년 6,0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기부하고, 봉사 활동을 하며 민·군 화합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강인규 육군 인사참모부장은 “후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 문화에 육군본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재)솔브레인나눔재단, 가치가유 충남119 성금 기탁
 솔브레인 홀딩스의 솔브레인나눔재단이 충남 사랑의열매에 가치가유 충남119 사업을 위한 지원금 1,428만 원을 기탁했다. 솔브레인나눔재단의 성금은 소방을 상징하는 119에 착안해 매월 119만 원씩 1년 동안 모은 금액으로, 재난과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



우진관광개발(주) 태인컨트리클럽, 나눔명문기업 가입
 우진관광개발(주) 태인컨트리클럽(대표 김재평)이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전북 8호이자 정읍에선 첫 번째 나눔명문기업 탄생으로 의미가 크다. 김재평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 나눔명문기업 1호로서 가치를 빛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 동산동, 착한가게 단체 가입
 익산시 동산동에서 여섯 곳의 착한가게가 단체 가입하며 전북 지역 착한가게가 3,600호를 돌파했다. 이번에 가입한 착한가게는 필하우징(대표 장미경), 투썸플레이스 익산유천생태습지공원점(대표 김상기), 이디야커피 동익산점(대표 김미란), KC바이오자원(주)(대표 김상철), 우리집반찬식당(대표 박영희), 본죽&비빔밥 익산중앙점(대표 이소연)의 총 6개소다.

전남



나눔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13억 원 배분
 전남 사랑의열매가 2022년 기획 사업인 나눔문화 확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3억 원을 배분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나눔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이다. 저소득 세대 생계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비로 지난 1월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5월엔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행복보금자리 신축 주택 신안군 1호 입주
 전남 사랑의열매가 주택 신축 매칭그랜트 지원 사업을 통해 신안군 무주택 기초수급자 장애인 모자 가구에 주택을 지원하고, 지난 4월 6일 가족의 입주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자농협 200만 원, 가나환경 200만 원, 행복동행나눔터 800만 원, 임자수도마을협동조합 100만 원, 건일중기 100만 원, 개인 기부 200만 원의 따뜻한 성금이 모여 신안군 1호 행복보금자리를 완공했다.

경북



농협중앙회, 울진 산불 피해 극복 성금 15억 원 쾌척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경북 사랑의열매에 울진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5억 원을 쾌척했다. 지난 3월 2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이성희 회장은 “울진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농협인들의 정성을 전한다”고 말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협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화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울진군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경북교육청, 산불 피해 지역 학생 위한 장학금 지원
 경북교육청이 울진군 등 산불 피해 지역 학생 돕기 성금 모금액 4억 4,000여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모금 운동은 산불 피해 지역 학생들에게 소중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개했으며, 경북 도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성금은 울진·영덕·고령군 산불 피해 지역 인근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영동문 회장, 나눔리더 가입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영동문 회장이 경남 지역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 사랑의열매 280호 나눔리더로 가입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영동문 회장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경남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립니다”며 “경남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힘이 되고, 소통하는 협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광장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전달
 창원광장로타리클럽(회장 박재경)이 경남 사랑의열매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국제로타리 3722지구 창원2지역 총재 최준용 지역대표는 “이재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모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의료계 맞춤형 나눔 프로그램 '사랑나눔병원' 출범
 제주 사랑의열매가 도내 의료 기관을 위한 맞춤형 사회 공헌 프로그램 '사랑나눔병원'을 출범했다. 첫 번째 가입자는 지난 3월 31일 가입한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이며, 4월 19일엔 아라요양병원이 동참했다. 사랑나눔병원은 의료업계의 적극적 나눔 참여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자 기획했다.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경준 아너, <시와 나눔> 시화전 수익금 기부
 고경준 아너(제일농장 대표)가 시와 나눔을 주제로 개최한 시화전의 수익금 1,004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성금으로 기탁했다. 직접 찍은 사진과 자작시로 구성된 이번 시화전은 전쟁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평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같은 날 고경준 아너의 부친 고순현 아너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마음을 더했다.

세종



이준범 관장, 세종 100호 나눔리더 가입
 지난 4월 1일 세종 사랑의열매 100호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세종점지도서관 이준범 관장으로, 시각장애인인 그를 위해 점자 인증패를 특수 제작해 전달했다. 점자 도서, 녹음 도서를 제작·보급하는 세종점지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취임한 이준범 관장은 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소상공인 위한 캠페인 전개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정연희)이 지난 4월 13일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상공인 힘내라! 캠페인' 발대식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착한가게 정기 기부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방문해 기부 참여 감사 인사와 마스크를 전달하고, 착한가게 현판 정비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어린이날 노래는 일제강점기 당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윤석중·윤극영 선생이 만들었다. 이 노래와 함께 어린이는 어른이 되었고, 또 다른 어린이가 탄생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5월이 되면 전국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처럼 변치 않는 게 또 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이다. 한때 어린이였던 우리 모두 그런 시대와 축복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새 나라, 새 일꾼
신입직원 김예설 Yes, sir!
 3화 - 김예설, 회의에 참석하다

사랑의열매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조금 올드한 이미지가 있지.

연말에 아나운서나 공직자들이 배지를 달고 나와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긴 하지만 이정석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본부장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올드해 보이는 게 아닐까요?

맞아. 나도 그때 처음 사랑의열매를 봤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매체에 홍보해야 장기적으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색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최완벽 대리 음... 그래요.

멋지다, 최 선배!

우리 중에 가장 젊은 김예설 씨 생각은 어때요? 아... 네!

저도 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 아... 그게... 코... 콜라보레이션 어떨까요?

콜라보레이션? 맞아, 요즘 콜라보가 대세긴 하지. 그거 할 예산이 있나, 우리? 응성응성 근데 우리 콜라보레이션 해본 적 한번도 없지 않나요?

그래! 말이 나온 김에 신입 사원 김예설 씨가 한번 열정적으로 추진해보자고! 제... 제가요? 우리 신입 처음부터 고생하겠네.

다음 화에 계속...

글·그림 오동진